

국회 외 장외도 활동무대로 삼은 의원들 - “유권자가 변해야 한다[2]” -

2016. 1.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 김도연

I 들어가는 말

국회의 기본 책무는 입법활동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회는 법률 제정 및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치 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 입법활동 즉, 법안의 제출에서부터 심의, 통과까지 일련의 과정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상당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위해 국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 등 여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입법활동에 충실하기 보다는 장외로 나가 돌출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 논란에 휘말린 경우도 있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0대 국회는 국회가 장외 보다는 원내에서 성실한 입법활동을 펼치기를 바라는 뜻으로 19대 국회에 장외 활동으로 논란이 된 의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19대 국회, 그들은 왜 장외로 갔나?

제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19대 국회는 개원 초기 국정원 댓글논란 등 야권의 대선불복 논란, 이후 수서발 KTX 민자사업 관련 철도민영화 논란, 기초연금법, 통진당 해산, 세월호 사건, 공무원연금개혁, 메르스사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노동개혁 등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국회는 입법부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며 정쟁을 가중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보다는 장외나 길거리에서 삭발을 하거나 단식을 하고, 피켓시위를 하는 등 입법부 구성원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

였다.

이들이 장외로 나간 이유는 대부분이 입법 활동과는 무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다.

우선 장외 투쟁 중 가장 장기간 그리고 대규모로 장외 시위를 벌인 의원들은 더민주당 의원들이다. 더민주당은 2013년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무려 100여 일 동안 시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가하면 시간제 장외 투쟁을 이어나갔다. 명분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이었다.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 부여받은 합법적인 입법 활동 공간인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로 나온 것이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원내로 복귀하고서도 의정활동을 정상화하기 보다는 당분간 원내보이콧 그리고 또 다른 장외투쟁을 반복했다.

두 번째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및 통진당 해산과 관련 하여 옛 통진당 의원들이 이석기 의원을 지지하거나 검찰의 수사에 반대하여 단식을 하거나 피켓시위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원외에서 보냈다.

세 번째 이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더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장기간 동안 청와대 앞이나 광화문 등에서 장외투쟁을 벌였다. 기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국회의원 정원 관련 비례대표 축소 반대, 대통령 국회연설 기회를 통한 의사표출 등 다양했다(【표 1】 참조).

【표 1】 제19대 국회 삭발, 단식, 장외 투쟁 등 의원 들출행동 백태
(기준일: 2016.1.25.)

연번	시작일	종료일	참가 의원(정당)	내 용	삭 발	단 식	피켓시위 등 장외투쟁
1	'130403	'130410	김용익(더민주당)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	○
2	'130628	'130703	우원식(더민주당)	우원식 의원, '일 지키기 입법촉구		○	○
3	'130831	당일종료	옛 통진당 소속 의원 다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죄 부인 및 국정원 해체 촉구			○
4	'13801	'1311 말	더민주당 당대표 등 소속 의원 다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시청 천막당사' 장외투쟁 등 (100여일)			○
5	'130902	'130904	이정희(옛 통진당)	이석기 사태 타결		○	○
6	'130904	당일종료	옛 통진당 소속 의원 다수	이석기 체포 동의안 처리 피켓시위			○
7	'130927	당일종료	더민주당 소속의원 다수	청와대 분수대 앞, 검정취소 내정철회 피켓 시위			○
8	'1311.06	당일종료	옛 통진당 소속 의원 다수	정당해산 결정 반발 삭발	○		

연번	시작일	종료일	참가 의원(정당)	내 용	삭 발	단 식	피켓시위 등 장외투쟁
9	'13.11.18	당일종료	옛 통진당 소속 의원 다수	본회의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통진당 정당해산청구 철회			○
10	'13.11.28	당일종료	옛 통진당 소속 의원 다수	이석기 의원 제명안 부당			○
11	'14.03.11	'14.03.12	더민주당 정보위 위원 다수	남재준 해임, 서상기 사퇴 촉구			○
12	'14.3.13	당일종료	새누리당 교문위 소속 의원	좌편향 왜곡 교과서 김정취소			○
13	'14.3.30	?	김한길 안철수 대표 등 지도부	서울역사 및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서명운동과 거리홍보			○
14	'14.3.31	?	더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	옛 민주당 출신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로 서울시청 구청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투쟁(천막설치)			○
15	'14.5.02	당일종료	정의당 의원 다수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반대			○
16	'14.05.31	'14.06.03	새누리당 의원 다수	새누리당 도와주세요 일인피켓 선거운동			○
17	'14.06.02	'14.06.03	새누리당 외 의원 다수	새누리당 도와주세요 일인피켓 선거운동 반대 피켓팅			○
18	'14.07~	?	더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	세월호 사건 관련 시위		○	○
19			정의당 소속 의원 다수				
20	'14.11.25	당일종료	정성호(더민주당)	동두천 전지역 국가지원도시 지정 촉구			○
21	'14.12.05	'14.12.10	김용익(더민주당)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반발		○	○
22	'15.07.06	당일종료	더민주당소속 의원 다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 반발			○
23	'15.07.28	당일종료	오세재(더민주당)	문장대 온천개발 즉각 중단			○
24	'15.08.20	당일종료	정의당 의원 다수	정당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 보장			○
25	'15.08.26	'15.09.03	이학재(새누리)	시청사 신축 이전 루인시티 포함 투쟁		○	○
26	'15.09.01	당일종료	정의당 의원 다수	비례대표 축소 저지			○
27	'15.10.06	당일종료	더민주당 의원 다수	문재인 물러나라 및 비례대표 없애라 지역구 사수 결의			○
28	'15.10.12	당일종료	더민주당의원 다수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			○
29	'15.10.13	당일종료	더민주당 교문위 위원 다수	친일독재교과서 국정추진 즉각 중단			○
30	'15.10.13	당일종료	더민주당 의원 다수	친일교과서 릴레이 1인 시위			○
31	'15.10.15	당일종료	새누리당 의원 다수	이념편향 역사교과서 규탄			○
32	'15.10.15	당일종료	더민주당 의원 다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유사시 일본 자위대 입국 사과 요구			○
33	'15.10.23	당일종료	박지원(무소속)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			○
34	'15.10.27	당일종료	더민주당 의원 다수	대통령 연설 야당 피켓			○
35	'15.11.03	당일종료	더민주당의원 다수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			○
36	'15.11.30	진행중	정의당 상무위원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	○
37	'15.12.31	당일종료	더민주당의원 다수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협상 규탄대회			○

※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6. 1)

2. 누가 장외로 갔나?

삭발, 단식 및 피켓팅 등 국회의원들의 장외시위에 당 지도부 또는 평의원 구분이 없었다. 제1야당의 경우, 당 지도부가 상당 시간을 장외에서 투쟁했고 개별 의원도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돌출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정당별 돌출행동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19대 국회 동안 20여건으로 54.1%를 차지하여 최다 횟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옛 통합진보당으로 6건(16.2%), 새누리당, 정의당이 각각 5건으로 13.5% 순이다(【표 2】 참조).

【표 2】 제19대 국회 삭발, 단식, 장외 투쟁 등 정당별 통계

구분	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옛 통합진보당	무소속
건수(비율, %)	37(100)	5(13.5)	20(54.1)	5(13.5)	6(16.2)	1(2.7)

*세월호사건관련 시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하여 각 1건으로 집계

Ⅲ 맺는 말

국회의원의 주요 임무가 입법활동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대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충실하기 보다는 상당 수 의원들이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이슈를 정책화하여 국회보다 장외 투쟁에 몰두했다. 국회의원은 정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활동 등 주요 임무는 소홀히 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시민단체나 이익단체의 활동과 구분이 안가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특히, 19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것이다. 당리당략으로 장외투쟁이 정해지면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과는 무관하게 장외로 몰려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통계에서도 의원들의 단체행동은 사실로 드러났다. 20대 국회는 이러한 후진적 정치 행태를 지양하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과 의무를 다 할 것을 기대한다.